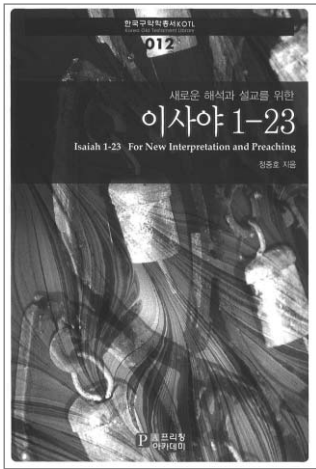


정중호 저/ 프리칭아카데미/ 390쪽/ 20,000원



구약의 어느 책보다 신약에 많이 인용된 책으로 알려진 이사야는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 그러나 이사야를 해석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논쟁점도 많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많은 책이다.

저자는 이사야 40-66장 부분을 이사야 II라는 제목으로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시리즈(제22권)로 먼저 출판하였으며, 이사야 24-39도 현재 출판을 위해 교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는 이사야 1-23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주전 8세기 후반 고대 중동의 역사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본문 해석의 바

탕을 마련하였다. 저자의 이스라엘 역사 및 고고학적 연구와 새로운 연대기에 대한 연구가 이러한 바탕을 한층 더 정밀하고 든든하게 만들고 있다.

본문 해석에 있어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이사야 예언자의 설교적 상황이다. 책상 앞에 앉아 조용하게 집필한 내용이 아니라 거리에서, 성전 문에서 큰 소리로 외친 설교가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해석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설교자로서 사용한 설교 기법과 설교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특수한 용어와 구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미지와 감각언어의 활용법이다. 논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자의 특수한 기법을 저자는 주목하였다.

저자는 역사비평적 해석방법과 본문 중심의 해석방법들, 그리고 독자 중심의 해석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본문을 해석하였다. 동시에 저자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본문의 의미를 독자들도 느낄 수 있도록 정밀하게 본문을 번역하는 것을 해석의 첫걸음으로 삼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소 저자가 강조하는 한국적 해석 방법이 이 해석서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연구 중에 있으며 그 연구가 결실을 맺을 때 새로운 해석서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본다.

그리고 저자는 레위기와 민수기를 해석한 경험을 살려 제사장 신학과 예언자의 신학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예언자의 외침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저자가 발견하려고 한 것은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그 메시지를 말로서 전달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사야가 원래 원했던 “볼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저자도 노력하였다.

주전 8세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대지진과 전쟁, 북왕

국의 멸망, 앗수르의 침공 등의 위기를 보여 주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백성의 선두에 서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그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지도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저자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의 시각이 사방으로 열리기를 기대하였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의 틀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점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 주면서 이사야를 통해 21세기 지구촌의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했다.

이사야는 날카로운 비판과 엄중한 심판으로 무디어진 양심과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있지만 동시에 희망찬 미래를 보여 주기도 한다. 그 미래는 철저한 회개와 자기 반성의 터전 위에 싹을 틔우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이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정의가 바로 서 있는 사회로 묘사되어 있다. 저자는 이사야가 보여 주는 여러 가지 환상(비전) 가운데 그 중 하나의 환상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산 위로 강물이 역류하듯이 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힘이 너무나 강렬하여 강물을 산 위로 역류시키는 모습이라 예언자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교회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는 새로운 희망을 갈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가 책임 있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려는 하나님의 힘이 강물을 역류시키듯 밀고 있는데 우리는 냉소주의, 무관심,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혹은 우리만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 있지 않는지 주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사야의 예언(설교)이 이러한 딜레마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을 저자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